국내 시판 의류제품 대부분서 NPEs 검출 충격

뉴스일자: 2011-11-18

FITI시험연구원, 국내외 유명브랜드 다수 제품서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사용 확인

[패션저널:윤성민 기자] FITI시험연구원은 '지속성장형 그린섬유패션 산업의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연구과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원) 수행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국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NPEs)의 사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섬유 제품의 가공공정에서 계면활성제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NPEs는 자연계로 방출되면 생물분해 등에 의해 노닐페놀(NP)을 형성하게 되며, 노닐페놀(NP)는 먹이사슬에 의해 전이 및 축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NPEs 와 분해산물인 노닐페놀(NP)은 자체의 독성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통한 오염으로 인체에 축적돼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등 국내외 유명브랜드 36점을 구입해 분석했으며 유아용의류 3점, 아동용의류 15점, 성인용의류 18점 중에서 25점의 제품에서 NPEs가 검출됐다. 조사제품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다수의 제품에서 NPEs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 국가별 비교에서 중국 제조 제품의 80%,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69.2%에서 NPEs 가 잔류돼 있음이 확인됐다.

최근, 이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피스는 다수의 국가에서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의 의류제품 및 스포츠 용품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Dirty Laundry 2" 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나이키, 아디다스, H&M 과 같은 기업들은 2020년까지 해당 유해 물질의 완전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섬유 제품 중 NPEs의 사용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섬유제품 중 NPEs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통하여 국제적인 규제에 앞서 기업들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제품에 대한 NPEs의 사용을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의 등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속적인 국내외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섬유제품에서의 유해물질 저감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린피스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인 개선을 위한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세계섬유신문사)